교회 안 좀비 구분법

(눅12:1-12)

1.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2.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4.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8.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10.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1.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 안 좀비 구분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좀비라는 것은 서인도제도의 원주민들의 민간신앙으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 민간신앙이 부두교라고 하는 신앙인데, 근본적으로 악마숭배로 분류가 됩니다.
그 부두교의 제사장이 죽은 시체에 서인도제도에서 나오는 마약을 집어넣을 때 그 시체가 살아서 움직인다고 하는 미신으로부터 나온 말이 좀비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시체, 좀비.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교회라고 하면 선민들이 모인 곳인데, 그 선민들이 누구냐 하면 에덴동산, 기쁨의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추방의 사실을 사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다 사망의 그늘에 처해 있을 때 부름을 받아서 생명의 세계로 회복이 되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인이고 그래서 선민이고 생명의 세계로 회복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생명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기쁨의 동산에 있을 때 살아있는 것이었고, 기쁨의 동산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기쁨을 지표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indicator가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느냐, 아,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다.
에덴동산에서 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처하면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가짜 기쁨이 판치게 된 것이고.

자, 그런데 그렇게 볼 때 교회 안에 생명으로 회복되었다고 믿어지는 자, 생명이라는 게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생명으로 회복된 자가 아니라 시체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깁니다.
2011년 기준 전 세계 개신교 인구가 7억 8천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선민이고 몇 명이 좀비일까?
내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누가 좀비고 누가 선민인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좀비 목사님이냐 좀비 장로님이냐 선민 목사님이냐 선민 장로님이냐를 당장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수만 명이라는 것은 숫자상 꼭 만 단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수만 명이라는 말 자체를 굳이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밟힐 만큼 모인 상태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내려갑니다마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십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단상 위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 주변에, 우리 보면 강대상에 의자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단상에 여러 의자가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손으로 부르신 거예요.
단상에서 연사가 연설을 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지시하기 위해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긴장을 풀기 위해서 옆의 사람에게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수만 명이 모였는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들을 앞에 두고 수만 명 군중이 밟힐 만큼 모인 상태에서 그들을 두고 제자들을 불러서 단순한 지시나 긴장을 풀기 위한 어떤 간단한 멘트가 아니라, 길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아마 추측컨대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전혀 몰랐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속닥거리듯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사자후를 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자후를 토해내야 될 그런 순간입니다.
게다가 내용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내용을 한번 스캔 해봅니다.
12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스캔 해보면 얼마나 분위기에 안 맞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냥 줄줄 읽어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이 군중들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만 두고, 웅성웅성 하는 그 군중들의 소리를 뚫고 속닥거리시는 말씀의 내용들이 전혀 분위기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제자들로서는 이해를 못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니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제자들이 어떤 경우에 어두운 데서 말하고 골방에서 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온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이목과 관심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모였을 때 모이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꽃이 피어있는 그런 상태에요.
이런 상태를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상황이 바뀌면 골방에서 어두운 데서 얘기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갑자기,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제자들을 군중들과 구분을 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제자들을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눈앞에 보이는 바 확인하는 바, 정말 정점에 달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분위기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뜬금없이 할 게 아니라, 주님이 앞에 나서서 주님

앞에 모여든 그 수만 명의 군중을 좋은 의미에서 선동하고, 그들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일치단결해서 힘을 규합하고, 사자후를 토해야 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리 와봐, 내가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과 구분되는 가까운 너희에게 말할 테니 잘 들어, 너희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8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니, 수만 명이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측근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될 일이 아니고, 시인하다 뿐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자랑스러워서 미칠 지경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게 왜 과제가 돼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본문이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지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위선을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의 외식을 왜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감염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바리새인의 외식이 누룩처럼 전염병처럼 번져나간다는 뜻이 뭘까요?
거룩한 모습? 이건 전파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모습 따라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 거룩한 모습, 깨끗한 거, 대접의 겉만 깨끗하다, 그 깨끗함이라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방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십일조,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십일조를 내는 그것 따라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전파될 리가 없어요, 그런 외식이.

그러면 어떤 외식이 전파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 기쁨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쁘면 기쁜 것이고 슬프면 슬픈 것이지, 기뻐하는 데에 웬 외식이 있느냐?
여기에 외식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엄마가 '돈! 돈!' 합니다, 그러다 아빠가 어느 날 돈을 콱 쥐어줍니다.
그러면 얼굴에 저절로 웃음이 확 피어나요,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돈, 돈 하다가 돈을 쥐었을 때 웃음이 피어나고 마음이 기뻐지는 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대선후보자들이 권력, 권력 하다가 대선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웃음을 주체할 수 없게 만면에 미소를 띠게 되는 기쁨의 표현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위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에 기쁨의 이유와 다른 게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위선자라고 하고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기쁠 때는 돈이 들어올 때나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존경 받을 때 기뻐합니다.
엄마는 돈, 돈 하다가 돈이 들어오면 기뻐하고, 아들, 아들 하다가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는데, 이건 외식이 아니에요.
대선후보가 권력, 권력 하다가 대통령 된 다음에 기뻐합니다, 이건 외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하나님 부르다가 돈이 들어올 때 기뻐합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식이 모든 선민에게 다 번져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그 수만 명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주님의 하나님 되신 통찰력으로 바라보실 때, 심령을 꿰뚫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볼 때, 수만 명 중에 예외 없이, 유대 땅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가 없고, 메시아를 찾지 않는 자가 없는데, 메시아! 메시아! 하면서 메시아로 기뻐할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십니다.
전부 선민이라고 부름 받아서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세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기쁨의 이유가 전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시체들이에요, 여전히 기쁨의 이유가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인 것이 아닌 사망의 상태, 기쁨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 에덴에서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쁜 것, 하나님과의 만남에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사망의 상태인데, 선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쁨의 이유를 이 세상 바깥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선민에게 다 번져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천국을 전파할 때, 진짜 기쁨의 이유인 하나님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전파할 때, 이 수만 명 전체가 다 지금은 예수님에게로 몰려와서 인기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수만 명이 전부 다, 천국을 유일한 기쁨으로 전파하게 될 때, 제자들에게 맞서는 거센 파도가 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이 앞으로 전해야 될 기쁨의 이유가 되는 이 지구 바깥에 와있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아버지는 이 수만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상태에서 서로 부딪힐 것을 예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말하고 골방에서 말하게 될 것이다'
왜? 천국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천국 안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만이 기쁨의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가 왜 골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만큼 인간사회에서 하나님만을 기쁨의 이유로 삼자는 이야기가 주목받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강하게 전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취급을 안 하지만, 골방에나 들어가 있고 어두운 곳에 묻혀버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중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강하게 전파될 때 사람들은 거세게 부딪혀올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선민은 죽은 시체들이고 좀비니까, 변태신앙이니까, 그걸 변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좀비라고 이야기해버릴 때 그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올 것이라는 얘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돈, 돈 하다가 돈 쥐면 기뻐합니다, 자식, 자식 하다가 자식이 일류대학에 들어가면 기뻐합니다, 승진, 승진 하다가 사장 되면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기쁨의 이유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열등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대신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얘기는, 대통령 된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 있고 하나님 있어서 당신이 대통령 된 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얘깁니다.
이건희 씨가 사업이 잘돼서 수십 조의 순이익을 남겨서 기뻐할 때에 그 앞에서, 정말 집 한 칸 없고 제대로 된 차 하나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분 있어서 당신보다 더 기쁘다, 당신도 나처럼 되라,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바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얘깁니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얘기에요.
예수님 한분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돈 때문에 기뻐하고 승진 때문에 기뻐하고,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비록 돈 없고 승진 못하고 건강 없어도 예수님 한분으로 기뻐하는 너희 모습을 드러내라는 얘깁니다.
이게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 이런 게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돈 때문에 기뻐해요.
이건 좀비, 움직이는 시체에요, 차라리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돈, 돈 하다

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위선은 아니지요, 그냥 죽음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돈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아버지를 부르면서 어떻게 돈, 돈 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 세상 일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7억 8천 만 개신교 인구 중에 몇 명이 좀비이고 몇 명이 선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이 많아져서 기뻐한다면 좀비, 당회원 장로님들이 헌금이 많아져서 교회재정이 두둑해져서 안심한다면 좀비입니다.
예외 없이 좀비입니다.
기쁨의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 때문에 부흥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재정 때문에 안심하고 건강 때문에 기뻐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좀비가 아니고 변태신앙이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냐는 얘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좀비로 살아왔어요, 선민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생명의 영역으로 복귀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당연히 선민이고 당연히 생명현상으로 복귀되어야 하지만,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아직도 이 지구 안, 십자가 이편에 기쁨의 이유들이 잔뜩 놓여 있습니다.
이 좀비 상태,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좀비인지 선민인지 내 기쁨의 이유를 확인하면 확인될 것인데, 바리새인처럼 교회지도자들이 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 것인 그런 외식의 누룩 때문에 온 교회가 다 전염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더 이상 좀비로써 선민인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이름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참 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